

## 〈달성토성마을〉 사례를 통해 본 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조건

정유진\*

### 〈차 례〉

1. 서론
2. 마을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마을만들기
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조건
4. 결론 : 도시 마을공동체의 한계와 가능성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조성·운영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달성토성마을〉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비산동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토성마을〉이 조성된 배경과 과정, 특징 등을 분석한다.

사례 지역의 경우, 달성토성의 영향으로 생겨난 ‘달성토성마을’과 ‘서민마을’이라는 마을 정체성을 스토리텔링 해 공간을 디자인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비정규교수.

하고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한 결과로 달성토성마을 축제가 열리고 골목정원이 조성되어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주민들의 활동 지지하고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나 시민 활동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도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축제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는 마을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참시키느냐도 관건이 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파악한 오늘날 도시의 마을공동체의 현장 상황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때 가능한 문화적 실천의 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마을공동체라는 무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여러 참여 주체들의 역할이 있을 때 비로소 운영될 수 있는 재현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일부 주민들만 즐기는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주제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달성토성마을, 달성공원, 달성토성, 비산동, 달성토성마을축제, 골목정원투어

## 1. 서론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sup>1)</sup> 연구 대상지인 대구 서구 비산

1) 해당 지역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문화적 실천을 통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대구 '달성'의 장소성 재현을 둘러싼 로컬의 문화지형』,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19.)의 주요 공간이자 필드이다. 2009년 [행복한 날 피콜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

동은 달성(達城) 토성 혹은 공원으로 불리는 유적지에 인접한 마을로,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른 개발 제한 규정으로 인해 근현대기에 형성된 도시 서민 주거지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마을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서민적 정서’가 느껴지고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킨다고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슬럼화나 노후화 같은 오래된 마을이 지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0년 무렵부터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2024년 현재 비산동은 ‘달성토성축제’와 ‘골목정원투어’가 열리는 <달성토성마을>로 변모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을’이라는 용어는 도시적 삶의 방식과 잘 어울리는 개념은 아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도시는 마을이 아니라 동(洞)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은 그 구역이나 범위가 마을이나 동네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sup>2)</sup> 동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분할되고 일련번호가 붙여지는 지리적 위치 표식’이라면, 마을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동이 인위적으로 경계를 나눈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공간 구분이라면, 마을은 일상생활이 전개되며 이웃 간 교류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공간에 가깝다. 그렇기에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을은 공동체의 다른 표현으로 의미화되어 사용되

---

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등의 조사 및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이와 관련해 해당 마을 주민은 “(<달성토성마을축제> 노래자랑에) ‘우리’는 하나도 참가 못했어. 전부 ‘딴 동네’ 사람들만 했다. (연구자: 비산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참석하나요?) 아니, 전부 다 비산동 사람인데, 여기 우리 이쪽 사람들 말고 저쪽 동네 사람들. 비산동이 1동부터 7동까지 많거든. 여기 이쪽 골목하고 저기 저쪽 골목하고 통이 다르거든.”(김○○, 70대, 여, 비산동 거주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네’와 ‘딴 동네’, ‘동’과 ‘통’, ‘마을’과 ‘동네’ 같은 범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다.<sup>3)</sup> 다시 말해, 마을만들기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는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활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공동체가 굳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도시의 마을공동체는 그것을 만드는 것부터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까지, 체계적인 기획과 실질적인 실천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조성·운영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달성토성마을>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대구 서구 비산동 2·3동 지역은 2010년 무렵부터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마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와 ‘골목정원투어’가 진행되면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례로 평가받는 마을이 되었다. 세간의 평가대로 마을만들기에 성공했다면, 어떤 요소와 요인이 작동한 결과인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조성되고 운영되는 과정과 상황을 통해 오늘날 도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인지, 그러나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대구라는 큰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비산동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3) 결국,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며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민, 『마을공동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9, p.31 참조.

<달성토성마을>이 조성된 배경과 과정, 특징 등을 살펴본다. 둘째, 마을만들기를 통해 조성된 <달성토성마을>은 어떻게 보면 기획에 따라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 마을공동체는 어떤 기획으로 시작됐으며, 어떤 요소들이 공간 디자인과 재현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의 마을공동체가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이 사례를 통해 어떤 실마리와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 2. 마을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마을만들기

### 1) 연구 대상지 소개

연구 대상지인 대구시 서구 비산2·3동은 0.49km<sup>2</sup> 면적에 인구 8,139명, 세대수 4,729가구로 구성되는 지역이다.<sup>4)</sup> 비산동의 경우 7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비산동’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함께 쓴다는 것만으로, 비산동 전체를 지역 공동체로 묶어 ‘비산동 주민으로서 지역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비산 2·3동의 중에서도 함께 축제를 개최하고 골목 정원 조성 등을 하면서 공동체적 실천을 수행하는 단위는 토성 서쪽 담장의 일부 통·반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그림 1>은 비산2·3동 중에서 골목정원이 조성되고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도 이미지이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4) 서구청 홈페이지 2024년 8월 통계 자료에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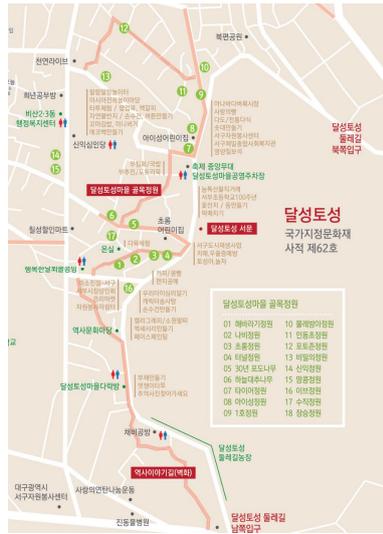
5) 본 지도는 <달성토성마을> 공식홈페이지(<http://toseong.com>)에서 발췌 및 참조.

다루는 지역은 대구 달성(達城) 유적지<sup>6)</sup>에 가장 인접해 있는 비산2·3동 일부 지역으로,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른 개발 제한 규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근현대 도시형성과 확장기에 조성된 서민 주거지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지역 일간지 비산동 관련 기사에서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서민적 정서’가 느껴지고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킨다고 묘사되고, 연관 검색어로 ‘달동네’, ‘쪽방촌’, ‘골목길’, ‘판자촌’ 등이 제시된다.<sup>7)</sup>

『매일신문』 2015년 5월 26일자 <대구 골목길 도시다(7) 소박한 삶의 공간, 미로골목> 기획연재 기사에서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일부 지역, 대구시민회관 건너 쪽방촌, 동구 입석동, 북구 고산동 등과 함께 중구 달성동 및 서구 비산동 일대를 ‘미로골목 공동체’로 구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골목길이 사라지면서 공동체도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골목길에서 이웃을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도시 구조는

<그림 1> 비산2·3동 <달성토성 마을> 공동체 해당 구역



6) 1963년 대한민국 사적 제62호로 지정됨.  
 7) 이와 관련해서 『매일신문』<신영남기행(25) 대구의 탄 얼굴 비산·남산동 달동네> 1999년 6월 28일; 『매일신문』<1평 인생> 별집·쪽방 주민 겨울나기> 2000년 12월 18일; 『매일신문』<고바위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 2005년 6월 21일자 기사 참조.

골목길을 사라지고 있어 이웃 간 교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8)</sup> 이처럼 비산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공간은 사라지고 있는 ‘우리 동네’와 ‘이웃 간의 정’ 등을 상징하게 되었다.

반면, 이런 골목길은 오래된 마을이 겪는 슬럼화나 노후화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소개되던 시기도 있었다. 『매일신문』〈신영남기행(25) 대구의 탄 얼굴 비산·남산동 달동네〉 1999년 6월 28일자 기획연재 기사는 비산동과 남산동을 ‘달동네’라 부르며 “비탈진 골목길로 발을 옮기면 탄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묘사하는데, “달성공원과 맞붙은 비산2·3동에 도시 생활에서 뒤쳐진 빈민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6·25 전후, 아카시아 나무를 베내고 하나들 들어선 판자집들이 60년대쯤 야산 하나를 덮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뤘다. 그 뒤론 변함이 없다. 단지 몇십 가구가 함께 쓰던 공동 화장실과 수도가 사라졌을 뿐”이라고 당시 마을 상황을 묘사한다.

동일 지역 일간지의 두 기사는 1999년과 2015년 십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 공간의 모습을 상이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와 21세기 ‘새마을운동’과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마을 관련 사업에서 지향점이 전환되는 배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마을’에 대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비산동 역시 가난한 ‘달동네’의 전형이었다가 이웃 간 정이

---

8) 이 기사는 유현준의 2015년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중 “옛적에 우리는 골목길 대문 앞에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했다. 굳이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같은 것이 따로 필요 없었다.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 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들은 자연스레 골목길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은 자기 집 앞 골목길을 내부 공간처럼 사용했다. 거리를 거실처럼 느꼈고, 이진 곧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증거로 이어진다” 구절을 인용한다.(이와 관련해 『매일신문』〈기획연재 대구는 골목길 도시다(7) 소박한 삶의 공간, 미로골목〉 2015년 5월 26일자 참조.)

9) 2000년대 이후 ‘마을만들기’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 자체는 1960년대에 국

살아있는 ‘골목 공동체’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개설에 운영되고 있는 <달성토성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마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토성은 대구시민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뿌리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삼한시대에서 (...)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대구를 지켜온 달성토성, 그 주변에는 항상 마을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 달성토성마을 사람들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골목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화분을 골목으로 꺼내 놓으며 시작된 골목정원! 빛바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은 꽃향기는 우리 마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문화를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마을과 단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꽃보다 아름다운 달성토성마을입니다.<sup>10)</sup>

위의 텍스트는 ‘달성토성으로 인해 생겨난 역사성과 공간성으로

---

가 정책으로 이미 한차례 등장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1년 경북 [청도군 새마을만들기 주택개량 자금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라는 공문에 ‘마을만들기’가 처음 등장하고 그 후 1970년대 초까지 전국 군 단위에서 ‘새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명칭을 바꾸고, ‘잘살아보세’라는 구호에 합축되어 있듯이 국가가 주도해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 국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마을만들기’는 방식과 지향점을 전환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 등장한다. 1992년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진행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재생 정책과 결합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형태로 전환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때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공동체적 실천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10) 이와 관련해 <달성토성마을> 공식홈페이지(<http://toseong.com>)에서 마을 소개 게시물을 참조.

인해 마을과 정체성이 형성되어왔으며, 이를 토대로 오늘날 공동체를 가꾸는 실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은 이곳의 골목 공동체나 문화 그리고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공고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래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진행되기 전 마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전까지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골목정원' 하면서 자기 집 앞에 꽃에 물을 주러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물을 주러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저 아줌마는 누구 집인데 꽃을 잘 가꾼다 하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골목에 자리 깔아놓고 막걸리라도 한잔 씩 하자하면서 모임도 생겼어요.[서○○, 비산2·3동 통우회 회장]

달성토성이라는 역사적 실체와 그로 인해 형성된 공간과 그곳에서 일상생활 문화가 전개되며 생산된 역사성과 공간성으로 인해 '비산동'만의 지역성 자체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 이야기 발굴과 문화 콘텐츠화, 마을 환경개선, 축제 개최와 골목투어 운영 같은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면서 '달성토성마을'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공동체 문화가 기획되는 과정과 운영·유지되는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2) 선행 연구 및 이론 검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마을의 공동체와 도시의 마을공동체의 형성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혈연이나 생업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였다면, 오늘날 도시에서의 마을공동체는 기획과 예산 지원 같은 인위적인 조직과 구성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이를 가진다. 다시 말해 현대 도시 사회의 마을공동체는 구체적인 기획과 적극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오늘날 ‘마을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공동체의 특징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잉골드(Ingold)의 경우는 이를 “토지의 구별에 의한 명확한 범위, 지리적인 근접성,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에 기초하는 공동성, 그리고 ‘땅’에 뿌리를 두는 거주자의 감각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반면, 로즈(Rose)는 “개개의 성원이 활동가의 연사, 문화적인 생산물, 미디어 이미지라는 비지리적인 공간에 의해 구축된 동일화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에 한해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말한다.<sup>11)</sup> 오늘날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활동들이 전통적인 마을 단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목적을 가진 시민이나 주민 활동가 혹은 문화생산자나 기획자, 특정 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된 모임 등이 마을에 개입하고 주민들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잉골드 보다는 로즈의 정의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앙리 르페브르의 경우 『도시에 대한 권리』(2024)에서 오늘날 도시계획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도시와 현실 그리고 도시

11) 지역 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요시하라 나오키,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출판사, 2010, p.71에서 참조.

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해 조감한다. 그는 “도시는 장소이자, 그 매개의 결과이고, 활동의 근거지이자, 제안의 대상이고 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 도시에 대해 재정의하면서 ‘대지에 투영된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도시는 구체적인 장소뿐 아니라, 사고를 통해 고안되고 도시와 도회지를 구분 짓는 특정한 평면에 사회를 투영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도시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 “차이점들의 집합”을 제시하는데, “다원성을 담보하며 도시적 삶이 전개되는 여러 가지 패턴과 방식으로 나타나는 도시에서의 공존과 동시성”이라고 부연한다. 현대 도시는 ‘다원성’ 때문에 다채롭고 풍부해지지만, 이 ‘다원성’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도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다원성’을 어떻게 포용하고 관리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sup>12)</sup>

이를 토대로 도시 공동체의 특징을 추출해 본다면, 첫째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자 장소이며, 둘째 한 집단의 생활세계의 운영 원리가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 시스템이다. 셋째, 그 집단 성원들의 지향점과 목적의식이 재현되는 사회·문화적 실천의 장이기도 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특징에도 해당하지만, 현대 도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는 세 번째 특징이 더욱더 강화되는 경향이다. 한마디로 현대 도시의 공동체는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기획과 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현대 도시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황익주·정규호 외(2016)의 연구는 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주목하는데 한국 사회의 도시민들은 자신이 소속감을 느

---

12) 이와 관련해서는 앙리 르페브르, 『도시에 대한 권리』, 이숲, 2024, pp. 120-123에서 참조.

끼고 동일시하는 공간적 실체로서의 ‘우리 동네’와 ‘우리 도시’로서 긍정적·적극적인 경험은 하지 못하면서 삶을 영위한다고 분석한다. 도시 내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실천방안이 학자, 정책당국자, 그리고 사회운동가에 의해 모색, 제안되어 지역주민을 공동적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도시 내에서의 지역 공동체성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 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의 저조함, 특정 개발업체의 이익에만 부응하는 현장 상황 등을 지적한다.<sup>13)</sup> 배영동(2023)의 경우 도시 달동네 활성화 사업에 있어 참여 주체들의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황을 일종의 문화정치적 행위로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주민지도자, 매개적 지식인과 일반 주민 간에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분석한다.<sup>14)</sup> 이광동(2019)은 비산동의 골목정원 조성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여타 다른 도시재생사업들이 행정이나 외부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마을 주민이 주거개선과 마을 특성화 사업 등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고양하고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주민의 참여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체계의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속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15)</sup> 권혁희(2014)는 장승제와 같은 마을 의례 이벤트 창출 과정에서 해당 주체들-지역단체와 구청, 주민센터, 장승제 참여 주민, 미디어와 연구자 그룹 등-다양한 실천이 각각

13) 황익주·정규호 외, 『한국의 도시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11-13.

14) 배영동, 「도시 달동네 활성화사업 주체들의 문화정치」,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연구』 제41호, 2023, pp.379-422.

15) 이광동, 「한국 도시마을 골목정원사업에 의한 주민의식 함양 : 대구 원도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46권, 2019, pp.101-129.

어떤 역할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분석한다.<sup>16)</sup>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련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든 외부 전문가든, 담당 공무원이든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 어느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례를 무턱대고 마을사업에 대입하고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현장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해법 찾기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7)</sup>

마을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르페브르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해서?’ 같은 질문은 도시 맥락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선포하는 것으로<sup>18)</sup>, 오늘날 마을만들기 활동은 실행 주체와 실행 목적, 활용 가능한 요소,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이 속한 도시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 즉, 도시라는 텍스트의 해독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또 산업화 및 자본주의화로 인해 생산 혹은 소비 기능만 남은 도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축제 같은 유희 혹은 예술 활동

16) 권혁희, 「마을의례의 창출과 참여집단: 노량진 장승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47권 제2호, 2014, pp.247-298.

17) 이와 관련한 연구로,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2013, pp.5-43; 김선직·신창훈, 「도시 밀집시가지에서 마을 만들기 수법 적용에 관한 제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제36권 제2호, 2011, pp.19-28; 황익주·정현목,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35(2), 2012, pp.101-128; 이왕기·정승현·지남석,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4호, 2013, pp.427-442; 이석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원칙: 장소시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51권, 2012, pp.3-18 등이 있다.

18)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 121.

을 사례로 제시한다. 축제가 열리는 “유희의 공간은 교류와 순환의 공간, 정치 공간, 문화 공간과 공존”<sup>19)</sup>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간을 도시에 창출하는 것은 일종의 실천 행위(praxis)이자 제작 행위(poiesis)이며, 여기에 시민 혹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권리(참여 활동에 대한 권리)와 전유<sup>20)</sup>에 대한(소유에 대한 권리와는 매우 다른) 권리”<sup>21)</sup>이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며 일종의 문화적 실천<sup>22)</sup> 행위이다. 축제가 열리는 마을로 변모한 <달성토성마을>에서 제작과 실천 행위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조건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기획과 극본, 연출과 무대 디자인, 배우와 관객까지 갖춰져야 하듯이,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마

19)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 240.

20) 전유(專有; appropriates)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로, 결코 소외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체적인 인간의 행위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해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 p.39에서 참조.

21)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 245.

22)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은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역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민은 문화적 실천의 행위자로서 장소의 발명과 발견, 장소성의 재현 같은 공간적 실천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문화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행위 주체로 정의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유진, 앞의 논문, 2019, p.1에서 참조.

을공동체도 계획과 기획, 스토리텔링과 공간 디자인, 실행 주체와 참가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재현의 공간이다. 아래 <그림 2>는 2009년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달성토성마을> 공동체가 조성되어 온 과정이다. 2016년 첫 번째 ‘달성토성마을축제’가 개최된 이래 2024년 4월 27일 여덟 번째 축제까지 이어지면서 마을공동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 <달성토성마을> 공동체 조성 과정



도시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교류’,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체계’, ‘지역 정체성’, ‘지역주민의 주체적 실천’, ‘지역사회의 공간 디자인’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황익주 외, 2016:20-25). 이를 바탕으로 <달성토성마을>이라는 도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게 되는 필요조건<sup>23)</sup>을 분석한다.

23) 지역성(locality)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성은 민족에서 고유한 향수, 축제와 축전을 위한 공간이거나 아니면 민족적인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성은 오늘날 마을만들기 활동에서 물리적 토대이자 문화자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p.331에서 참조.

1) 마을 정체성의 재구성 :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비산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3년이다. 그해 6월 [행복한 날피골 만들기 사업] 시행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내고 비산2·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공모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해 가는 도심지를 재생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심 자원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도시재생사업(수복형 도시재생)으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개건축사업과 대별’되며, 특히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sup>24)</sup> 그리고 이것은 2015년부터 도시재생과 담당 업무로 이관되어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인동촌시장 활성화, 달성토성 둘레길, 상징조형물 설치, 공방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문화 활성화(주민교육, 문화예술행사, 캐릭터·마을지도 제작) 등을 계획·실행하게 된다.<sup>25)</sup>

그런데 2013년 비산동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기 몇 해 전, 서구청에서는 「서구 행복한 날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라는 예비조사를 진행한다. 당시 조사범위는 달성토성을

24)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 소통참여 서구소식 보도자료 중 “행복한 날피골 만들기 사업 주민설명회” 2013년 6월 11일자 게시물에서 참조.

25) 국토교통부가 2013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은 국가 정책이 되었고, 비산동 마을만들기 역시 도시재생 정책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이때 제정된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주체를 주민, 민간·기업, 지원기구, 국가, 지자체로 나누고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포함해 비산2·3동 142번지 일원이며 구체적 내용은 ‘마을 대표 스토리 발굴 및 조사, 대표 스토리자원을 문화콘텐츠로 개발, 스토리 콘텐츠 자료집 제작을 위한 디자인 소스 제공’이었다. 다시 말해, 2013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기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 용역에서 발굴한 마을 이야기와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을 스토리 발굴 용역의 세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수집해 마을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파악해 본다.

당시 조사 용역의 해당 범위는 서구 비산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된 2·3동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달성토성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 고려해 더 영역을 확장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또 인문지리와 스토리텔링으로 분야를 나누어, 인문지리팀에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물리적 궤적의 추적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요 장소에 기반한 정보에 대해 탐색하고, 지적도, 지도, 사진, 행정 계획도 같은 문헌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팀에서는 비물리적인 궤적인 이야기에 기반한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1세기 무렵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토성은 대구 지역의 중요 문화유적이다. ‘달구벌’에서 ‘대구(大丘)’로 이어지는 지역 명칭부터 각종 전설과 민담, 민속 신앙과 의례와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요소들을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성 둘레에 바로 인접해 형성된 비산동 역시 달성의 영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인 공간구조와 일상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정체성 인식에도 달성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표 1〉 『서구 행복한 날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 조사 내용

항목	조사 내용
인문 지리	달성토성, 달성서씨 세거지, 달구화, 달벌성, 대구(大丘), 날피, 원고개, 달성서씨 세거지 비산지, 달서천, 비산동, 천왕당지, 달성공원, 대구신사, 동물원, 서부시장, 영남대로, 비산동, 인동촌, 청어샘, 잉어샘, 고려장 만대이(고개), 미나리짬, 떡디골, 사리못, 배꼽마당, 서부초동, 직조공장, 오스카 극장, 하꼬방(판자촌), 달동네, 빈민촌, 피난민촌
역사	달성토성, 달성 고분군, 고대 지방 토호세력, 삼한시대, 신라 천도계획, 중세 달성서씨 세거지, 근대, 일제 강점기 공원화와 대구신사 설치, 6.25전쟁기 군부대 주둔과 피난민촌, 현대 동물원 조성
민속	날피 전설, 원고개, 천왕나무, 날피복춤, 비산농악, 천왕매기
구술 증언	“비산동은 ‘비싼 동네’이다” “원고개는 원님이 지나간 고개이다.” “비산농악으로 지신밟기 할 때 재물을 차리고 지신을 밟으면서 한해 액땀을 했다.” “날피는 비봉초등학교 부근이다.” “문디미뿔은 나환자들의 무덤이다.” “배꼽마당은 오스카극장 앞 사리못의 넓은 독이다.” “청어샘은 물이 맑아 동해에서 올라온 청어가 살았다.” “달성공원 입구에서 서북방향으로 판자촌이다.” “오스카극장 뒤편에 이북사람들이 정착해서 죽답기로 타월을 짰다.”

위에서 조사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비산동은 ‘대구의 기원이 되는 달성토성 인접 마을’과 ‘해방 이후 이촌향도민과 피난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서민주거지’ 두 가지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향후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일종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비산2·3동에 한정해서 ‘달성토성마을’이라는 마을 별칭이 작명되고 이것을 축제 같은 각

중 이벤트 타이틀로 삼게 된다. 그리고 달동네나 판자촌 같은 낙후 주거지라는 특징에서 ‘서민 마을’과 ‘골목 문화’ 같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끌어내 ‘대구에서 가장 비싼 동네 비산동’ 같은 역설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라는 말로 서민성을 긍정한다. 이렇게 마을에 축적된 역사·문화적 흔적에서 ‘달성토성’과 ‘서민 마을’이라는 소재를 발굴해내고 이를 마을 정체성으로 삼아 향후 공동체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필요조건으로 공동체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와 함께 ‘그러한 지역정체성이 도시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상징적·의례적 행위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제시한다.<sup>26)</sup> 이 마을도 마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스토리텔링 해 향후 활동의 핵심 콘텐츠로 삼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달성토성마을>이라는 마을만들기 활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공간 기획과 디자인과 현 과정을 따라가 본다.

## 2) 마을공동체의 공간 디자인 :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형성된 도시’와 ‘만들어진 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성된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역사적·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융해되어 상호관계를 가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를 말한다면, ‘만들어가는 도시’는 의미에 적합한 몸체, 얼굴과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이다.<sup>27)</sup> 이는 ‘형성된 도시’의 흔적들을 토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의미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상태를 이상적인 도

26) 황익주·정규호 외, 앞의 책, 2016, p.23.

27) 페오도르 폴 김,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2009, p.14.

시로 보는 관점이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공동체의 지향과 목적에 맞춰 공간을 디자인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흔적을 스토리텔링 하고 재현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다. 공간의 디자인적 질서는 도시에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물적 토대 혹은 배경을 이루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sup>28)</sup>, 비산동 역시 과거부터 쌓여온 물리적 배경 및 환경 조건인 달성토성 유적지 옆에 형성된 서민 주거지역이라는 배경은 현재의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회의 요인으로 삼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첫 번째 기획한 공간 디자인은 달성토성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비산2·3동은 토성의 서쪽 벽에 맞닿아 있어 표면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마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토성이 주는 혜택보다는 토성의 그늘-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었다. 앞선 언급대로 문화재 관리법으로 인해 대대적인 주거 환경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달성토성이 공원과 동물원으로 조성되면서 생겨나는 소음과 악취 같은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점은 주민들로서는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과 불편함이었다. 게다가 정문이 마을에서 정반대인 동쪽 편에 있어 마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마을에 접한 서쪽 담벼락 쪽에서는 주민들만 알음알음 드나들던 오솔길과 통로를 정식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개방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일정부분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마을과 공원은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것은 향후 다른 활동으로도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마을공동체 공식

---

28) 황익주·정규호 외, 앞의 책, 2016, p.24.

명칭을 ‘달성토성마을’로 한다거나 축제에서 새로 생긴 길을 이용해 토성에 함께 오르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 공간 디자인은 서민성의 전형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마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생겨나는 빈집과 공터 관리였다.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을 붙이고 일부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 청소를 해도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민센터장은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에 화초를 심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마을 환경개선에 뜻이 있던 몇 명의 주민이 나서 여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 정원’이라는 이름을 정해 뜻말을 세운다. 이런 공간이 생겨나니 손기술이 좋은 주민은 마을 정원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작은 연못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민은 정원에 자신이 키우던 화분을 내놓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집 대문 앞과 담벼락 밑에 화분을 하나둘 내놓으며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골목 정원’이라는 이름도 붙여지게 된다. 어둡고 삭막하던 골목이 저마다의 취향과 개성이 담긴 골목 정원으로 바뀌지게 된 것이다. ‘마을 정원’과 ‘골목 정원’, ‘물레방아 정원’ 같은 뜻말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환경은 몰라보게 개선되어 간다.

게다가 이런 정원은 화초가 있는 보기에만 좋은 곳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웃과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었다. 평소에 어색한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이웃 간에 화분에 물을 주러 나오고 정원을 함께 가꾸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말문을 튼 주민들은 함께 마을 잔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도 하게 된다.<sup>29)</sup> 이것이 2024년 현재 8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

29)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 간의 친밀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의 탄생 과정이다.

비산2·3동이 〈달성토성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르페브르의 ‘공간의 전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도 없었던 달성공원에 공식적으로 통로를 내달라고 제안하고 이후 그것을 마을공동체 활동 위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방치된 공터와 골목을 자신들의 취향과 개성을 담아 가꾸고 이름을 붙여 자신만의 장소로 치환하는 활동은, 공간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유이자 일종의 문화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이 오로지 주민의 활동과 실천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 도시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활동에서 ‘마을 주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주민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같은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3) 마을 주민의 주체적 실천 :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실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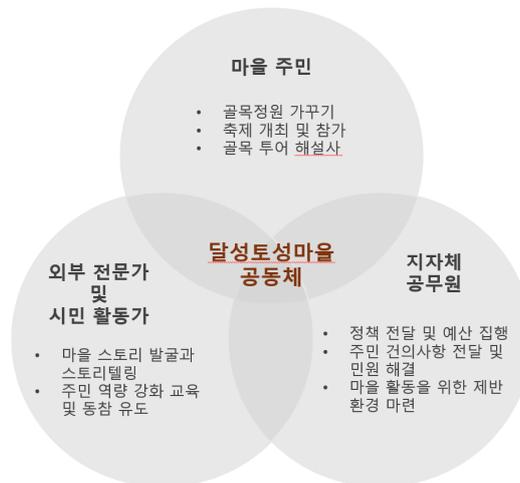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례를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로 평가한다. 또 지역 공동체가 형성·유지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면서 각종 실천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말한다.<sup>30)</sup>

---

과 ‘구성원의 전부 혹은 대다수가 지역사회 주민으로 이루어진 공식적·비공식적 결사체들의 조직 구성 여부’를 지역 공동체 형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황익주·정규호 외, 외, 앞의 책, 2016, p.20-21에서 참조.

<달성토성마을>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런 활동의 ‘실천 주체’를 ‘마을 주민’이라고 단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대도시 마을에서 그 활동의 주체는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아오고 있는 말 그대로의 마을 주민부터, 지자체 공무원으로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공부방이나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외부 전문가까지. 오늘날 마을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지역민들이 각자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는 경합의 장이 되고 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전략을 짜고 전술을 구사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제휴와 연합해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2> <달성토성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주체와 담당 역할



30) 황익주·정규호 외, 앞의 책, 2016, p.23.

〈달성토성마을〉 마을만들기에 참여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이들을 분류해보면 마을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활동가 세 그룹으로 나뉜다. 연극 무대에 비유해 이들의 역할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연극이 공연되려면 우선 극본이 있어야 한다. 어떤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마을공동체 공간을 디자인하고 재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이 필요하다. 이 역할은 앞서 살펴본 대로, 흩어져 있는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담당하게 된다<sup>31)</sup>. 물론 마을 주민들도 교육과정을 거쳐 여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16년 진행된 [날피유사프로젝트]는 비산동에서 비영리 시설인 〈햇빛따라 도서관〉과 〈희년공부방〉을 운영 중인 시민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마을 이야기 수집 및 마을 노래를 만들기 사례이다. 이들 시민 활동가들은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방식을 고민해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교육과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비산동 주민센터에 발령받아 해당 지역을 담당하거나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집단은 정부-시청-구청-주민센터의 단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을 마을에 적용하고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주민들의 요구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한다. 예를 들어, 마을 축제 개최에도 정원 가꾸기에도 당연히 이를 진행할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공무원들은 재현의 공간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 즉 공동체 공간의 디자인과 재현을 담당한다.

31) 『서구 행복한 날피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은 지역에서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시간과공간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마련된 무대인 <달성토성마을>이라는 재현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은 배우로서 전면에 드러나서 실질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축제의 공간에서 주민들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골목투어의 해설을 담당하기도 한다. 물론 마을 주민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며 주인공과 조연의 역할을 하는 주민, 소극적으로 엑스트라 혹은 관객으로 참가하는 주민 그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때로는 이런 활동에 대해 반감을 갖는 주민도 생기기 마련이다. 아래는 주말 동안 열린 축제 당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게시물과 여기에 대해 답변한 담당 공무원의 댓글이다.

거주민 : 축제하는 장소 바로 옆에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못살던 곳이었는데 꾸며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고맙습니다. 근데 축제할 때 너무 시끄러워요. (...) 바로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마이크소리에 관광객들 북적이는 소리 듣게 되는 데 정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매년 골목축제 하는 날이 두려워요.(...) 그래도 좋은 일 하려는 건데 좀만 지켜보자싶어서 넘어갔는데 더 좋은 완벽한 토성마을을 함께 만들어가잔 의미로 글 남깁니다.(게시일 : 2018.04.30.)

담당자 : 축제 기획팀의 ○○○입니다. 거주민선생님이 주신 글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각 지역에서 왜 이런 축제에 공을 들이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통 통제, 소음 공해, 밀려드는 인파, 행사 후의 쓰레기 등.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있지만, 얻는 게 더욱 많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비산2·3동(달성토성마을)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노인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동네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될런지요? 거주민선생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마을이 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제에 함께하는 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내년 축제에는 '거주민' 선생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게시일: 2018.05.08.)<sup>32)</sup>

이렇게 오늘날 여러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수많은 이들의 각기 다른 성향과 요구, 어긋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겨우 끼워 맞추고 아울러서 빼적거리는 채로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무대였다.

#### 4. 결론 : 도시 마을공동체의 한계와 가능성

21세기 한국 사회를 말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마을만들기’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마을만들기 관련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살기 좋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마을 특히 마을공동체는 잘 적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마을공동체는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까지, 체계적인 기획과 실질적인 실천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조성·운영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달성토성마을>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비산동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토성마을>이 조성된 배경과 과정, 특징 등을 분석했다. 사례 지역의 경우, 달성토성의 영향으로 생겨난 ‘달성토성마을’과 ‘서민마을’이라는 마을 정체성을 스토리텔링 해 공간을 디자인하고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

32) <달성토성마을> 공식홈페이지(<http://toseong.com>) 자유게시판 게시글 부분 발췌.

실천한 결과 축제가 열리고 골목정원이 조성되어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주민들의 이런 활동 지지하고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나 시민 활동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마을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도시 마을공동체는 ‘순수한 주민’만으로는 조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장 상황이다.

또 ‘모든 주민’이 마을 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진 소수의 마을 주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지·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마을공동체의 현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마을 활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주민도 없지 않았다. 2024년 4월 여덟 번째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를 개최한 현장에서 여러 부스 중 한쪽 구석에서 축제 개최를 반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이런 이벤트는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제각각 다른 입장과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현실에서 ‘마을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현장 상황에 주목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필요조건을 분석한 본 연구는 마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공무원의 말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마을을 만든다’는 말 자체는 사실 도시의 익명성 같은 기본적인 특성 자체를 무시하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인들은 서로 각자 다 다른 직업과 생각 등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우물물, 마을길, 두레 같은 공동 자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절박함이 없어요. ‘공동체 복원’이나 ‘마을만들기’ 같은 건 말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게 기본이 돼야 하는 건데, 비산동의 경우 많은 사

람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지속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엄○○,(전)비산2·3동주민센터장]

연구를 통해 파악한 오늘날 도시의 마을공동체의 현장 상황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때 가능한 문화적 실천의 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마을공동체라는 무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여러 참여 주체들의 역할이 있을 때 비로소 운영될 수 있는 재현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일부 주민들만 즐기는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매일신문』

대구시 서구청, 『서구 행복한 날외골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 2009.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 201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대구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dgs.go.kr>

〈달성도성마을〉 공식 홈페이지 <http://toseong.com>

### 2. 논문

권혁희, 「마을의례의 창출과 참여집단: 노량진 장승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47권 제2호, 2014, pp.247-298.

김선직·신창훈, 「도시 밀집시가지에서 마을만들기 수법적용에 관한 제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제36권 제2호, 2011, pp.19-28.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

<달성토성마을> 사례를 통해 본 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조건 59

- 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3권 제호, 2013, pp.5-43.
- 배영동, 「도시 달동네 활성화사업 주체들의 문화정치」,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연구』 제41호, 2023, pp.379-422.
- 이광동, 「한국 도시마을 골목정원사업에 의한 주민의식 함양 : 대구 원도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46권, 2019, pp.101-129.
- 이석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원칙: 장소시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51권, 2012, pp.3-18.
- 이왕기·정승현·지남석,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4호, 2013, pp.427-44.
- 정유진, 「문화적 실천을 통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 대구 '달성'의 장소성 재현을 둘러싼 로컬의 문화지형」, 경북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19.
- 황익주·정현목,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35호 2권, 2012, pp.101-128.

### 3. 단행본

- 떼오도르 폴 김 지음,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2009.
- 아르준 아파두라이 지음, 차원현 외 옮김, 『고삐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
- 앙리 르페브르 지음, 곽나연 옮김, 『도시에 대한 권리』, 이숲, 2024.
- 요시하라 나오키 지음, 이상봉, 신나경 옮김,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출판사, 2010.
- 이재민 지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황익주·정규호 외 지음, 『한국의 도시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투고일: 2024. 8. 20 심사완료일: 2024. 9. 10 게재확정일: 2024. 9. 13)

정유진  
소 속: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주 소: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jeongyou@daum.net

[Abstract]

### Through the Case of <Dalseong Toseong Village> Requirements for Urban Village Community Making

Jeong, You-Jin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village community in a city through a specific case study called <Dalseong Toseong Village>. First, the histor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Bisan-dong a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the background,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on of <Dalseong Toseong Village> are analyzed.

In the case of the case area, the village identity of 'Dalseong Toseong Village' and 'Poor People's Village', which were created due to the influence of Dalseong Toseong, are being designed and reproduced through storytelling. As a result of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practice of the village residents in these activities, the Dalseong Toseong Village Festival was held and an alley garden was created, which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study of village creation. However,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is case study is that the role of external experts, civic activis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supported and assisted the residents' activities was also importa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how to get the village residents who do not participate in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festivals or sometimes oppose them is also a key issue.

Key words: Village making, Village community, Dalseong Toseong Village, Dalseong Park, Dalseong Toseong, Bisan-dong